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919

JCCT 2023-9-110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화감수성의 효과

Mediating effec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이소원*, 김보영** 박충길***

Sowon Lee*, Boyoung Kim**, Chung Kil Park***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수용성 및 상호문화감수성의 관계를 탐색하고 향후 보건 의료인력으로서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일 개지역의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임의응답 및 중도탈락을 제외한 108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와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r=.572, p<.001$). 상호문화감수성과 다문화수용성($r=.650, p<.001$), 다문화 인식($r=.456, p<.001$)과의 관계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도 상호문화감수성의 매개 효과가 있었다. 즉,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상호문화감수성은 0.188-0.554의 범위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에 대한 제고와 더불어 상호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인식, 다문화 수용성, 상호문화감수성, 간호대학생

Abstract Aim(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in multiculturalism,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improving multicultural awareness as health care workers in the future.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35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one region, and 108 students, excluding random responses and dropouts, were the final subjects for analysis.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ediation effects were test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s. The results confirm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r=.572, p<.001$). The relationship between mutual cultural sensitivity, multicultural acceptance ($r=.650, p<.001$) and multicultural awareness ($r=.456, p<.001$)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In addition, the effect of mutual cultural sensitivity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s a resul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tercultural sensitivity ranged from 0.188 to 0.554, and the 95% confidence interval did not include 0; thus, indirect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order to increase multicultural acceptance.

Key words :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acceptance, Mutual cultural sensitivity, Nursing students

*정회원,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원 (제1저자)
**정회원,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효다움요양병원 한의사
접수일: 2023년 8월 14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August 14, 2023 / Revised: August 30,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dasom7812@daum.net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1. 서론

전 세계 국가로의 이동이 쉬워지면서 대부분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이후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해 1-20만명 씩 유입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변화하면서 한국은 사회, 문화, 의료, 복지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2]. 특히 외국인 노동자 및 이주여성 등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간호 대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한 후 대상자에게 맞는 간호나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다[3]. 또한 해외 관광객, 비즈니스, 의료관광 등 병원에서 의료인력이 외국인을 치료하거나 간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다문화 인식은 우리 사회안에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구별하며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4]. 다문화에서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인식은 태도를 결정하며 한 번 형성된 인식은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다[5]. 2015년부터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성 수용 및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6]. 그러나 대부분 다문화 학생들을 주류문화에 동화시켜 한국의 일반학생이 되도록 교육하는데 비중을 두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다문화와 관련한 교육에서도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7,8].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다문화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다문화 대상자의 신념이나 가치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6]. 2022년 기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24.8만명으로 2021년 대비 70.1%가 증가했다[9]. 이와 더불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가입을 하도록 법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0]. 따라서 다양한 문화

적 배경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만족스러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나 언어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해소시키는데 다문화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다문화 인식과 더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이 함께 존재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12]. 또한 다문화 수용성은 나와 다른 문화나 사회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거나 협력하려는 태도[13]로도 볼 수 있으며 다른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14]등으로 정의 내리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으로 다른 인종이나 문화에 있던 사람들의 유입이 적었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며 이로 인한 학교 및 사회생활 등에서의 부적응을 보고한다[15].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16], 시민의식의 발달 수준[17], 다문화인에 대한 접촉이나 매체 또는 교육[18]등 다양한 요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의 교육이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이 아닌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데 목적도 있으므로 다문화 교육이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이거나 억압적인 논리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19]. 기존의 다문화와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가 다문화 인식이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9] 교육부 통계에서도 코로나19 이전까지 꾸준히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20].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더 이상 단일문화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 및 수용성은 향후 다문화 인식 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관광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병원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9] 교육현장 못지않게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생으로서가 아닌 향후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특성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

나아가 이들이 다문화에 대해 지식적인 이해가 아닌 정서적 공감 및 수용의 개념으로서 상호문화감수성 및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는 다른 연구와의 차별점을 갖는다.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에게 표면적이거나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등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기관에도 외국인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분야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가 중요하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화감수성의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화감수성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C학교와 G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선행연구등을 고려하여 효과의 크기를 0.15,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 0.95로 계산했을 때 107명이 필요하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135명이었으며 임의응답방지를 위한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이 27명으로 최종분석대상은 108명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하였다.

3. 연구도구

1) 다문화인식 척도

다문화 인식은 Prak[21]이 개발한 다문화 인식 도구로, 총 15문항이며 인지적, 의식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Lim[2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3으

로 확인되었다.

2) 다문화수용성 척도(KMCI)

다문화수용성은 Min 등[13]이 개발한 도구를 Ahn 등[23]한 개정된 도구로 총 35개 문항, 6점 척도이다. 하위영역은 다양성차원, 관계성차원, 보편성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hn 등[2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이었다.

3) 상호문화감수성 척도

상호문화감수성은 Chen & Starosta[24]의 도구를 바탕으로 Jang[25]이 한국어 버전으로 개발한 도구이다. 총 17문항으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상호작용향유도', '상호작용 자신감', '상호작용주의도', '상호작용 참여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의 요인별 신뢰도는 .82-.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60-.86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자료분석은 SPSS와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과의 특성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많아 참여자의 93.5%인 101명이 여성이었다. 참여자의 72.2%인 78명이 무교로 확인되었다. 매체에서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내용을 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 전체의 91.7%인 9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14.8%인 16명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활동 경험(있음-52명(48.1%), 없음-56(51.9%))과 외국인과의 대화 경험(있음-62(57.4%), 없음-46(42.6%)), 해외여행의 경험(있음-62(57.4%), 없음-46(42.6%))은 경험유무의 큰 차이가 없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경험은 93.5%인 101명이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교과목이 42명(41.6%), 교과목 외는 59명(58.4%)이었으며 중학교 및 그 이전은 48명(47.5%), 고등학교 33명(32.7%), 대학교가 20명(19.8%)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요인은 외국인과의 대화 경험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화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26.92±16.29, 대화 경험이 없는 집단은 120.70±12.85으로 집단의 차이는 -2.137($p=.035$)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1. 일반적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특성	항목	N(%)	다문화수용성	
			M±SD	t/F(p)
성별	남	7(6.5)	124.17±14.19	-0.13 (.990)
	여	101(93.5)	124.25±15.28	
종교	없음	78(72.2)	124.51±13.96	-0.04 (.997)
	있음	30(27.8)	124.52±15.24	
외국인, 이주민 관련 매체	일주일에 1회 이상	16(14.8)	130.88±13.13	1.51 (.216)
	1개월에 1회 이상	62(57.5)	123.34±16.25	
	1년에 1회 이상	21(19.4)	120.95±14.41	
	본 적없다	9(8.3)	126.63±8.33	
외국인과의 활동참여	없음	56(51.9)	123.07±14.41	-0.836 (.405)
	있음	52(48.1)	125.53±15.98	
외국인과의 대화 경험	없음	46(42.6)	120.70±12.85	-2.137 (.035)
	있음	62(57.4)	126.92±16.29	
해외 여행 경험	없음	46(42.6)	123.69±13.05	-2.246 (.065)
	있음	62(57.4)	124.48±16.06	
다문화 교육여부	있다	101(93.5)	124.90±15.25	1.863 (.065)
	없다	7(6.5)	113.17±8.30	
다문화 교육	교과목	42(41.6)	126.71±16.71	1.01 (.316)
	교과목외	59(58.4)	123.61±16.60	
다문화 교육 경험	중학교 및 그 이전	48(47.5)	124.65±17.17	0.17 (.845)
	고등학교	33(32.7)	124.21±13.33	
	대학교	20(19.8)	126.65±13.81	

2. 척도간 상관관계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수용성, 상호문화 감수성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r=.572, p<.001$). 상호문화감수성과 다문화수용성($r=.650, p<.001$), 다문화 인식($r=.456, p<.001$)과의 관계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간 상관분석결과
Table 2. Correlation

	다문화 수용성	상호문화감수성
다문화 인식	.572***	.456***
다문화 수용성		.650***

3.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화감수성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화 감수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다. 그 결과는 표3과 표 4와 같다.

1단계에서 다문화 인식은 상호문화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57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2.7%였다. 2단계에서 다문화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45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0.8%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다문화 인식과 상호문화 감수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다. 다문화 인식($\beta=.348, p<.001$)과 상호문화 감수성($\beta=.491, p<.001$)은 모두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모형의 설명력은 51.8%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인 다문화 인식척도의 표준화계수가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2단계에서는 $\beta=.456 (p<.001)$ 이었던 값이 3단계에서는 $\beta=.348 (p<.001)$ 로 감소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표준화계수 값 역시 감소하고 있어 상호문화감수성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각 효과의 유의성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의 총효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상호문화감수성은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표 3.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분석 결과
 Table 3. Mediation analysis using PROCESS Macro

	β	SE	t	p	R ²	F(p)	
1 단계	0.572	0.127	7.149	<.001	0.327	51.107 (<.001)	
2 단계	0.456	0.783	5.255	<.001	0.208	27.62 (<.001)	
3 단계	다문화 인식	0.348	0.121	4.551	<.001	0.518	55.917 (<.001)
	상호문화 감수성	0.491	0.135	6.417	<.001		

표 4. 매개분석 효과검증
 Table 4. Verifying the bootstrapping mediation effect

	Effect	SE	LLCI	ULCI	t	p
Total Effect	0.907	0.127	0.655	1.159	7.149	<.001
Direct Effect	0.552	0.121	0.311	0.792	4.551	<.001
Indirect Effect	0.355	0.093	0.188	0.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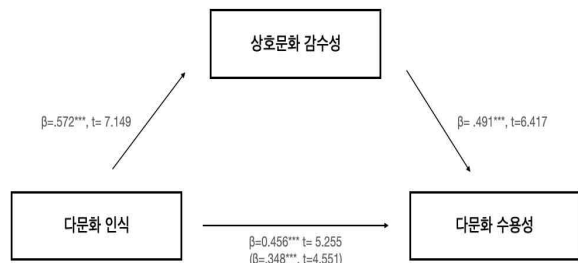


그림 1. 매개분석 모형
 Figure 1. Path diagram of mediation analysis

IV. 논의

간호사는 돌봄 속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만나며 그 속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간호사는 다문화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화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은 외국인과의 대화 경험이 있는 경우 대화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수용성은 그 개념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으며 여러 선행연구를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을 수용하는 태도나 인식으로 볼 수 있다[26]. 과거의 선행연구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은 한국사회에서의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주민들이 내국인과 동일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27]. 다문화 수용성은 국외 연구를 고려했을 때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나 해외방문 또는 거주 경험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있다[28,29].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른 문화에 속한 외국인 등과의 대화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해외여행에 대한 경험이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학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심리적으로인, 다문화 관련 요인, 이념성향등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소득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신뢰나 공공신뢰가 높을수록, 단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0-32].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노동시장에서의 참여율 등이 낮고 상대적으로 외국인이나 이민자와의 경쟁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소득의 경우 표집집단구성이 대학생으로 특정 집단에 밀집되어 있거나 소득이 본인의 소득보다 가구 소득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매체접촉 및 다문화 교육여부 등에 있어서도 실제 설문 대상자의 직접경험이 아닌 간접경험이거나 지식전달로서의 교육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7,8]. 인구학적 특성에서 다문화

수용성에 유일하게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요소가 외국 인과의 대화여부였던 점으로 볼 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이 중요한 요소로 사료된다. 이는 향후 다양한 문화적 환경의 대상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간호대학생이 키워야 할 다문화 역량으로 보여지며 다문화 교육 및 교과목 구성 등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문화 인식,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화 감수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상호문화감수성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 인식과 상호문화감수성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인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상호문화감수성은 다문화 감수성, 문화간 감수성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발전시키는 능력[24]이라고 하였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타문화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거나 상호문화 감수성이 낮을 경우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편견을 갖기 쉬우며 차별적인 시선을 갖게 될 수 있다[33]. 따라서 다양한 언어나 문화를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또한 상호문화감수성을 높이거나 다문화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식전달중심의 다문화 교육과정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향으로 상호문화주의에서 교육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간호학 뿐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영역에서 중요한 화두일 것이다[33-35].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경험했던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간호교과과정내에 문화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36,37]. 한국에서도 최근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일회성의 교육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대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특성을 반영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8-40].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의 증가, 의료관광 등이 증가하는 한국의 의료환경에서 다문화 역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역

량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양적연구로서 설문만 진행했기 때문에 참여자 특성에 따른 심층적인 정보를 탐색하거나 분석하는데 제한적이며 참여자 다수가 다문화 교육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여부 등에 따른 특성의 차이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외국인과의 경험여부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는 점과 상호문화 감수성이 다문화 인식과 수용성의 관계로 볼 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간호대학생에게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한국에 거주하는 간호대학생 대상 조사연구이기 때문에 다문화를 가진 구성원의 상황이나 생각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운영 및 개편 등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 인식과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화감수성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시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과의 접촉경험여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상호문화감수성이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에 있어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적용이 되어 향후 다문화 건강대상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statistics.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90437069088100 [cited 23.08.11]
- [2] J.O. Reimann, G.A. Talavera, M. Salmon, J.A. Nunez, & R.J. Velasquez. Cultural competence among physicians treating Mexican Americans who have diabetes: A structural model.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59, pp.2195-2205, 2004.
- [3] E.H. Pick, C.S. Park.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3, No. 5, pp. 690-696. 2013.
- [4] M.H. Park.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Experience, Parents' Stereotype on Multicultural efficac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KAIS*. Vol. 15. No. 5, pp. 2749-2757. 2014. <https://doi.org/10.5762/KAIS.2014.15.5.2749>
- [5] C.S. Yu.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Disabled. master's degree, gongju University. 2012.
- [6] B Byambasure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erception of Korea based on the Foreigners' Perceptives. Master's degree. Graduate School of Gangneungwonju NationalUniversity. 2023
- [7] I.S. Chang, K.J. Jeon. Case Study of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MES*. vol. 6, No. 1, pp. 73-104. 2013.
- [8] K.H. Mo. Policies and Directions of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6, No. 4, pp. 245-270. 2009.
- [9] Ministry of health welfare. '외국인 환자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50%까지 회복'.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949 [cited 23.08.10]
- [10] easy to find, practical law. . H-wel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08&ccfNo=3&cciNo=6&cnpClsNo=2> [cited 23.08.10]
- [11] O.H. Ahn, H.G. Cha, S.H. Park. Survey on Degree of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Their Correlation in Nursery Teache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 Vol. 14, No. 3, pp.1411-1425. 2012.
- [12] J.M. Hwang.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 from the perspective of new politics of membership,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53, No. 4, pp.152~272. 2010.
- [13]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조영기, 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 구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14] Y.H. Seongok, S.D. Park, Y.S. Lee.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A Systemic Review. *Multiculture & peace*, Vol. 7, No. 2, pp.173-203. 2013. 10.22446/mnpisk.2013.7.2.006
- [15] J.A. Oh, S.J. Byoun. The Experience of School Dropout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7, pp. 125-136. 2020.
- [16] K.K. Kim, Y.J. Hwang.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9, No. 1, pp. 87-117. 2012. DOI: 10.22804/jke.2012.39.1.004
- [17] J.H. Lee, K.K. Kim.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3, No. 1, pp. 53-77. 2013. DOI: 10.32465/ksocio.2013.23.1.003
- [18] M.S. Choi, Y.H. Joh. An Analysis on Influence Factors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Teachers and Adolescent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Vol. 17, No. 4, pp. 1-31. 2-14. DOI:10.22955/ace.17.4.201411.1
- [19] M.S. Jeong, J.Y. Jo. Critical analysis on the ideological reprodu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2, No. 2, pp. 211-232. 2012. DOI:10.32465/ksocio.2012.22.2.008
- [20] e-statistics.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34 [cited 23.08.10]
- [21] Y. K. Park.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Preservice Teachers' Changes In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s: Centered On The Cultural Diversity.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39, No. 3, pp.147-183. 2008. <http://www.riss.kr/link?id=A75552225>
- [22] M. H. Lim. A Study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Awareness. Master's thesis, Cheonju University, Cheonbuk. 2012.
- [2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2012.
- [24] Chen, G. M., & Starosta, W. J. The development

-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sensitivityscale. *HumanCommunication*, Vol. 3, pp. 1-15. 2000.
- [25]S.M. Cha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ch*. Vol. 12, No. 5, pp. 303-328. <https://doi.org/10.37736/KJLR.2021.10.12.5.09>
- [26]Y.K. Kwak.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vol. 13, No. 2, pp. 5-26. 2020.
- [27]김주희(2012).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Dixon, J., Durrheim, K., & Tredoux, C. Beyond the Optimal Contact Strategy: A Reality Check for the Contact Hypothesis. *American Psychologist*, Vol. 60, No. 7, pp. 697-711. 2005.<https://doi.org/10.1037/0003-066X.60.7.697>
- [29]Edmonds, C., & Killen, M. Do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racial attitudes relate to their intergroup contact and cross-race relationship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Vol. 12, No. 1, pp. 5-21. 2009. <https://doi.org/10.1177/1368430208098773>
- [30]H.S. Kim.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2012
- [31]H.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eople's Social Capital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9, No. 11, pp. 193-202. 2014.
- [32]S.K. Eun.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Compared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Middle School Students. *JKAIS*. Vol. 17, No. 10, pp. 685-695. 2016.
- [33]H.J. Ya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for prepar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7, No. 1, pp. 42-48. 2021.
- [34]B. R. Kim, "How is reconciliation possible? :Theoretical Reflections and Application to theKorean Peninsula," *Journal of peace andunification studies*, vol.11 no.2, pp.39-74, 2019.
- [35]B. E. Cha, "Practice and Possibilities of Global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InterculturalDialogue," *Global Studies Education*, vol. 13 no.3,pp. 25-56, 2021.
- [36]J.H. Kim. Case Study of Media Literacy for Intercultural Education: Focused on <Crash Landing on You>.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9, No.1, pp. 321-326. 2023.
- [37]Jeffreys MR. Teach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and health care. 2th ed.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 pany; 2010
- [38]Brathwaite AC, Majumdar B. Evaluation of a cultural competen- ce educational programm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53, No. 4, pp. 470-479. 2006.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6.03742.x>
- [39]Park MH, Park EA. Effect of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for nurse.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6, No. 2, pp.115-133. 2013.
- [40]Kim SH.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cultural com- petence in nursing for nursing students and its effec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580-593. 2013. <https://doi.org/10.5977/jksne.2013.19.4.580>
- [41]H.I. Jeong, S.Y. Han, S.H. Seo. Effects of a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al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J Korean Acad Nurs Adm)*. Vol. 23, No. 4, pp.406-415. 2017.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22R1A2C1008948124098211942010 2)